

사회적 다윈주의에서 개혁적 다윈주의로: 19세기 다윈주의의 재해석

박우룡
전남대학교

- | | |
|-----------------------|--------------------|
| I. 머리말 | IV. 홉하우스의 개혁적 다윈주의 |
| II. 사회적 다윈주의와 그 비판 | V. 맺음말 |
| III. 개혁적 다윈주의의 사상적 기반 | |

I. 머리말

다윈주의가 인류에게 끼쳐온 영향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는 다윈주의가 19세기에 또 다른 과학혁명을 일으켜 인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¹⁾ 특히 다윈주의를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제질서에 적용한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는 인류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적 다윈주의는 적자생존의 원리와 인종주의를 통해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데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인류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나뉘진다는 인종주의를 통해, 민족적·인종적 갈등은 진보를 낳는다는 생각과 같은 특별히 위험한 요소들을 민족주의

1) 본 논문은 상당 부분 필자의 다음 두 저서의 논지와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박우룡,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사회개혁』 (신서원, 2003)과 박우룡, 『영국인의 문화와 정체성: 대처주의와 자유시장이 부른 전통의 위기』 (소나무, 2008).

에 주입시켜,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했고, 20세기의 세계대전을 불러왔으며, 나치에 인종청소의 명분을 제공하기까지 했다.²⁾ 또한 자유시장의 경쟁질서는 주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켜 왔고 마침내 20세기 초에 대공황의 파국을 불러왔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뉴 라이트(New Right)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역시 사회적 다윈주의를 그 주된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20세기 말 뉴 라이트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였던 하이에크(F.A. Hayek)는 ‘자생적 질서(a spontaneous order)’라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한 변종³⁾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이론은 사회적 요인이나 인간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가격 정보만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불평등을 초래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장 지상주의를 지배적인 경제논리로 만들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시장 지상주의의 논리 앞에 사회개혁의 가치관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역시 21세기 초에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이후 사회적 다윈주의는 일부 경제적·사회적 강자나 기득권층을 제외한 인류 다수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생존경쟁·적자생존·약육강식 등 사회적 다윈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들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과학적 기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기 이전 19세기부터 사회적 다윈주의의 폐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다윈주의의 지배적 경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다윈주의가 퍼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윈주의를 적자생존이나 경쟁의 차원으로만 받아들일 때 초래될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윈주의를 기계적으로 사회에 적용하려는 데 반발하여, 그것을 인간 사이의 협동이나 정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사회개혁의 과학적 기초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개혁적 다윈주의(Reform Darwinism)’로 불린다.⁴⁾

2) Marvin Perry,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Europe* (Boston and Toronto: Houghton Mifflin Company, 1993), p. 357.

3) 하이에크는 반복해서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의 쌍둥이 이념에 관해 언급하였다 Gerald F. Gaus, “Hayek on the evolution of society and mind,” in Edward Fese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ay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32.

4) 로저스(J.A. Rogers)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는 다윈의 자연도태 이론이 인간 사회에 적용된 것이며, 그 핵심 내용을 투쟁(struggle)과 경쟁(competition)으로 보고 있다. 그와 달리 진화론을 사회적 협동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려는 입장을 개혁적 다윈주의

사회적 다윈주의로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 폐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오늘날 사회적 다윈주의의 본질을 재고찰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즉, 생물에게 적용되는 다윈주의를 그것이 곧바로 적용될 수 없는 인간사회에 무차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인간·사회·국제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다윈주의의 대척점에 다윈주의를 사회개혁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하나의 지적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헉슬리(Thomas Huxley)에서 시작되어, 키드(B. Kidd)에서 스티븐(L. Stephen), 크로포트킨(P. Kropotkin)을 거쳐, 리치(D. Ritchie), 홉하우스(L. T. Hobhouse)와 홉슨(J. A. Hobson) 등 19세기 후반 개혁 사상가들은 사회적 다윈주의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스펜서(H. Spencer)를 공격하면서 다윈주의를 사회개혁과 연관해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윈주의를 개혁적 관점에서 해석하려했던 지적 전통을 소개하기로 한다.

II. 사회적 다윈주의와 그 비판

19세기 후반 일부 사회 사상가들은 생물학의 영역을 이탈하여 다윈의 이론을 인간사회와 국제질서에 적용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경쟁(struggle for existence)’과 ‘적자생존(survival for the fittest)’이라는 다윈의 개념을 원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경쟁적인 기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적합성(fitness)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성공은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므로 사회에 이로운 것이고, 사회·경제적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⁵⁾ 이들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자연계에 적용되는 다윈의 생물

(Reform Darwinism)로 구분하고 있다. J. A. Rogers,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2 (1972), p. 265.

5)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는 “한 거대 기업의 성장은 오직 적자생존에 의한 것이다 … 이것은 기업의 사악한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의 법칙 그리고 신의 법칙의 실행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Richard Orson ed., *Science as Metaphor*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71), p. 111에서 재인용,

학적 개념을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역시 제국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군국주의를 강화하였다.⁶⁾

그들은 정부에 의해 실시되는 제반 사회개혁은 자연이 정해놓은 경쟁적 질서를 뒤엎는 것이며, 가장 열등한 자들을 도우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행해진 개혁들은 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 그들은 유기체는 수만 년의 세월에 걸쳐 진화하면서 천천히 변화한다는 다윈의 이론을 따라 사회 역시 천천히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지혜와 충돌하고 사회적 신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리의 배반으로 간주하면서 빈민들이 겪는 곤경은 국가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전통적 자유주의의 관점을 고수했다.⁸⁾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사람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고, 근면성, 자기 의존, 검소함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진화론은 18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절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창자가 스펜서(Herbert Spencer)였으며, 그의 이론은 자유방임주의의 수용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스펜서는 그의 『개인 대 국가(The Man versus State)』(1884)에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부정했다. 그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국가간섭의 시대적 경향에 경종을 울리려는”⁹⁾ 이 저서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상세하게 열거했다. 공장 감독제, 공중위생법, 곡물과 약에 관한 제한 규정, 공공 우편제도, 의무 공립 교육, 그리고 빈민에 대한 공적 구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개입이 바로 그것이었다.¹⁰⁾ 그는 자유당에 의해 통과된 이러한 개혁적 법률들을 반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펜서는 빈민을 무능한, 약한, 뻔뻔스러운, 게으른 존재로서 생존경쟁에 부적합한 존재로 보았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신봉했던 스펜서는 국가라는 체제는 사

6) Perry,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Europe*, p. 254.

7) *Ibid.*, p. 253.

8) *Ibid.*, p. 279.

9) David Ritchie, *The Principle of State Interference* (London: Swan Sonnenschein, 1891), p. 3.

10) Perry,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Europe*, pp. 279-280.

악하고 억압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¹¹⁾ 그가 추구하는 사회란 정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그 대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공동체였다. 이와 같은 스펜서의 입장에서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는 개인의 권리보호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그쳐야만 하며, 그밖의 모든 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펜서는 아무리 그 동기가 좋다하더라도 국가의 권력이 확대될 때 개인의 자유는 축소된다고 보았다. 스펜서는 당시의 첨단과학인 진화론의 논리를 빌려 개혁적 집단주의의 시대 흐름에 대항하는 체제이념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펜서는 사회의 진화를 자동적·기계적·필연적 과정으로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정신(mind)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관여할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하며, 오직 적자생존의 법칙만이 진보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의 이론은 경쟁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착취, 국가개입의 최소화, 그리고 침략적 제국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¹²⁾ 이러한 사고방식은 말할 나위 없이 자본주의 하의 경제적 착취나 부도덕한 경쟁적 개인주의, 나아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되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어느 정도 국가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스펜서에 와서는 입법을 통한 어떠한 국가의 간섭도 배척되었다. 그는 “과거 자유주의의 기능은 왕의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고, 미래의 진정한 자유주의 의회의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¹³⁾ 그러므로 개인 간의 경쟁을 제약하는 어떤 인위적인 법률—통치의 법률이든, 여타의 법률이든 간에—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며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다. 영국에서 ‘당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스펜서의 이러한 이론은 당대의 영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의 이론이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유주의에 접목되면서, 자유주의는 시대를 역류하는

11) *Ibid.*, p. 279.

12) 스펜서는 당시 각별히 미국에서 그 성가가 드높았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ichard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1869-1915* (Philadelphia, 1944): revised edn. (Boston: The Beacon Press, 1955, 1962)를 참조.

13) H. Spencer, *The Man versus the State*,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D. Macra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p. 152.

반동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개혁주의적 지식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적 적”¹⁴⁾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산업사회의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개혁 이론가들은 무엇보다도 스펜서의 이론에 대항할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역설적으로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는 개혁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탄생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사회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스펜서의 사상체계를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당시 영국의 경험주의적 풍토에서 큰 지지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회의 진보를 설명해 주는 종합철학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을 제시해 주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진화론이라는 배를 탔지만 스펜서와 신자유주의자들이 지향했던 목적지는 달랐다. 스펜서는 진화론을 기초로 하는 종합철학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자유주의의 확실한 승리와 개인과 국가의 대립구도를 강화하려고 했던 반면, 개혁가들은 진화론을 통해 기존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집단주의적 개혁의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실제로 188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스펜서의 이론에 대한 영국 내 학계의 반응은 미국에서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¹⁵⁾ 개혁가들은 스펜서 이론의 오류를 입증하여 개혁주의의 입지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혁주의적 방향을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⁶⁾ 때문에 리치와 홉하우스 등은 스펜서의 선구적 방법론을 따르면서도,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안티테제의 논리로 파악함으로써 집단주의적 개혁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스펜서의 이론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스펜서의 입장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인물이 헉슬리(Thomas Huxley)였다. 그는 문명이란 자연의 진화를 초월한 것이며, 사회가 도덕적 이상을 향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연의 질서와 다르다고 보았다. 또 그는 진화과정에서의 윤리적 측면

14) Ritchie, *The Principle of State Interference*, p. 3.

15) Stefan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L. T. Hobhouse and Political Argument in England 1880-19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149.

16) Michael Freeden, *The New Liberalism: An Ideology of Social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986), p. 80;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p. 151.

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진보는 매 단계마다 우주적 과정[적자생존의 생물학적 과정 : 필자]의 억제를 의미하며, 그 과정이 또 다른 것, 즉 윤리적 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진보의 목적은 우연히 적자가 된 자들의 생존이 아니라 ... 윤리적으로 최적인 자들의 생존이다.¹⁷⁾

헉슬리의 이러한 윤리적 대안은 진화론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사회의 발전을 생존경쟁으로 설명하는 데 반대하는 그의 주장에는 동조했으나, 자연의 진화과정에 윤리적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여하려는 시도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한 키드(B. Kidd)는 진화는 개인들 사이의 경쟁과 도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에 종속시킬 때 인류의 발전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개인은 현재의 만족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독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기독교의 애타주의를 통해 개혁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또 경쟁적 가치관을 인정하면서도 기회의 균등에 대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미래에 대한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다.¹⁸⁾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스펜서의 주장에 반대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완전경쟁의 체제를 가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의 경쟁의 실상을 도외시켰다는 점이다.¹⁹⁾ 자유계약은 통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할 여지가 없거나 서로가 불평등한 입장에 놓이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혹은 여타의 불평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당시의 계약들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재산가들이 시장을 매점하고, 또한 고용주들이 피고용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감수하도록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펜서가 주장하는 자유경쟁이란 하나의 “잔인한 신화”²⁰⁾에

17) T. H. Huxley, *Evolution and Ethics*, Romanes Lecture, p. 33; Freedon, *The New Liberalism* p. 81.

18) Freedon, *The New Liberalism* pp. 83-84.

19) David Wiltshire,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Herbert Spenc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190.

불과하다는 것이다.

Ⅲ. 개혁적 다원주의의 사상적 기반

1. 그린의 ‘적극적 자유’

그린은 19세기 후반 토인비와 더불어 영국의 지식인들에게 도덕적 사명감과 개혁주의적 열정을 불어넣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국가관과 반(反)개혁적 태도에 대응하여 관념론의 입장에서 집단주의적 사회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린의 사상은 도덕적 가치를 과학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러한 접근방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린은 자연의 법칙에는 인간의 행위규범을 결정해 줄 아무런 요소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진화론을 통해 사회윤리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린은 일반의 경험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정치적 의무의 이론을 세우려고 했다.

기존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퇴조는 곧바로 자유주의 이념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의 주류는 국가의 중립을 원했으며, 국가의 직접적 개입은 개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엄습해 온 경제적 위기와 그에 따른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국가를 더 이상 중립적 위치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과거와 같은 중립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의 총체적인 도덕적 이익의 구현을 통해, 개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애롭고 합리적인 조직체”²⁰⁾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즉, 국가가 사회개선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학을 대신할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다. 이 시점에서 국가개입을 통한 개인의 ‘적극적

20) *Ibid*

21) Michael Freeden, “The New Liberalism and its aftermath,” in Richard Bellamy ed. *Victorian Liber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 180.

자유의 확보'와 '공동선의 추구'라는 그린(T. H. Green)의 집단주의적 이상은 개혁가들에게 하나의 논리적 돌파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린의 형이상학은 인간이 '자의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의식과 이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동시에 이성적·도덕적 존재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린은 이러한 가능성의 완전한 실현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며, 국가의 최우선의 역할도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돕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린의 정치학의 주된 관심사는 법률·권리 및 국가의 도덕적 기능에 있었다.²²⁾ 그는 자신의 저서 『정치적 의무론(*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1895)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목적을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 혹은 권리와 의무의 제도에 의해 추구되는 도덕적 기능 혹은 의도를 고찰해 보려는 것”²³⁾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기완성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 개인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그린으로부터 자유의 의미는 더 이상 ‘강제의 배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더 이상 중립적 위치에 머물지 않고, 개인이 ‘적극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삶의 기초를 제공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린의 전통적 자유주의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점은 국가가 이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할 목적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⁴⁾ 즉 국가의 역할은 시민들이 합리적·도덕적 존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것이다.²⁵⁾

그린에게 있어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완성 못지않게 ‘공동선’의 추구에 있다. 인간의 완전성과 모든 가능성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공동선과 공공의 노력이 전제된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는 자신이 진정한 도덕적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들 역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라는

22) A. Vincent & M. Plant, *Philosophy, Politics and Citizenship: The Life and Thought of the British Idealists* (Oxford: Blackwell, 1984), p. 52.

23) T. H. Green(1895),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London: Longmans, 1895, Reprint 1963), p. 29.

24) T. H. Green(1883), *Prolegomena to Ethics*, ed. by A. C. Bradley (Oxford: Clarendon Press, 1906), p. 332 Bellamy ed, *Victorian Liberalism*, pp. 137-138.

25) Bellamy, *Victorian Liberalism* p. 141.

것을 인정하게 한다. 또한 자신의 발전과 행복은 반드시 타인의 발전과 행복이 함께 추구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은 이웃들의 진정한 자아실현, 즉 공동선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린이 주장하는 윤리학의 핵심은 공공이익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를 바로 이성적 국가의 특징으로 보았다.²⁶⁾ 즉 권리의 행사는 그 반대급부로서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타인들의 자아실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권리 역시 다른 도덕적 개인들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바로 ‘제권리’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권리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필수적인 힘이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어떠한 도덕적 삶도 영위할 수 없으며 자기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법률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을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²⁷⁾ 한 국가의 주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존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는 그린의 입장은 영국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이상을 결합시키려는 개혁주의자들의 출발점이 되었다.²⁸⁾

2. 리치의 관념론적 진화론

스펜서적 진화론의 부정적 측면을 배제한 새로운 진화론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생물학이론과 관념론을 결합시킨 ‘관념론적 진화론(Idealistic Evolutionism)’이었다. 스펜서의 경우 진화론이 개인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면, 그린의 관념론은 집단주의적 국가이론의 근거를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화론과 관념론은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 불가피한 것인가? 1880년대 옥스퍼드대학의 일부 지식인은 관념론이 추구하는 공동선의 이상을 진화론을 통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1870년대 말 옥스퍼드에서 그린이에게 수학한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²⁹⁾ 학

26) Peter Robbins, *The British Hegelians 1875-1925*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2), pp. 65-66.

27) Green,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p. 41.

28) R. Pearson & G. Williams, *Political Thought and Public Policy* (London Longman, 1984), p. 146.

29)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p. 162.

생이었던 리치는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리치는 사회적 다윈주의의 도그마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개혁활동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이론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리치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치는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그리니의 사상을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인간정신의 개혁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개입”에 관한 한 그의 스승보다 훨씬 앞서나갔다.³⁰⁾ 그리니가 일반의 사회적 감정을 벗어난 국가의 법적 규제는 부당하다고 보았던 반면, 리치는 국가가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후리덴은 리치를 영국의 관념론자들 가운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유주의이론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³¹⁾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관을 도출하기 위해 리치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추구한 바는 진화론적 윤리학과 관념론적 국가 이론의 결합이었다.³²⁾ 그는 『다윈과 정치학(Darwinism and Politics)』(1891)에서 자연도태를 통한 역사해석에 인간의 의식을 첨가한 새로운 진화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지적·도덕적·사회적 발전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진화론이 인간사회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자유방임의 정치적 도그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치는 관념론을 과학 분야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며, 『다윈과 헤겔(Darwin and Hegel)』(1893)에 이르러서는 헤겔과 다윈의 사상을 공통의 틀 속에 묶으려고 하였다.

리치는 이 저서의 서문에서 저술의 동기를 “칸트에 기초한 관념철학의 수용, 이념과 제도의 역사적 연구방법, 그리고 생물학 등, 우리 지성계의 혁명적 변화들을 결합시키려는 시도”³³⁾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이성적 선택’을 통해 종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진화론과 관념론 양쪽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윈과 헤겔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리치는 생물학적 개념을 곧바로 인간사회에 적용할 때 ‘사회적 다윈주의’와 같

30) *Ibid.*, p. 163.

31) Freedon, *New Liberalism*, p. 58.

32) Robbins, *The British Hegelians*, p. 82.

33) Ritchie, *Hegel and Darwin*, pp. v-vi. Michael Bentley, *The Climax of Liberal Politics: British Lib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1868-1918* (London: Routledge, 1987), p. 77.

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³⁴⁾ 그는 자연계의 경쟁과 인간사회의 경쟁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비록 자연의 힘에 종속되는 생물학적 유기체이기는 하나, 사고와 반성을 통해서 사회조직과 규범·관습·법률과 제도를 고찰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유전’과 ‘사회적 변이’는 개인들과 종족들 사이의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생존경쟁이라기보다는 이념과 제도의 경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진보를 이룩해 나가는 것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치가 자연의 진화 속에 도입한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보게 될 홉스우스와 마찬가지로 ‘의식’에 관한 문제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의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존경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 통용되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들 가운데서 신중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³⁵⁾ 따라서 리치는 ‘경쟁’이라는 개념을 ‘생존경쟁’이 아닌 ‘문화적인 내용들’ 사이의 경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경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택권은 인간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리치는 ‘선택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중심원리와 자연도태라는 다윈의 생물학적인 측면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리치에게 있어서 정신의 진화는 사회진보의 촉매제였던 것이다. 개혁가의 역할은 개인의 정신을 사회성을 인식하는 차원으로 격상시켜 주고, 개인의 윤리적 잠재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³⁶⁾ 그러나 개혁가는 개인의 정신발전을 위해 가치의 제공자 역할에 머문다. 개인의 의식은 ‘자기 결정적’이므로 윤리와 사회관의 선택 역시 개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리치의 개혁론 또한 개인 중심적인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고 있었다.

리치는 자신의 『국가개입의 원리(The Principles of State Interference)』(1891)에서 스펜서의 개인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가간섭을 통한 사회문제의 집단적 해결책을 추구하였다. 그인과 마찬가지로 리치는 국가의 도덕적 역할을 추구하고, 사회적 해악들의 치유와 공동선의 추구를 위한 국가개입의 이론적 정당성을 모색하였다.

34) D. G. Ritchie, "Social Ev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Jan. 1896), p. 166; Person & Williams, *Political Thought and Public Policy*, p. 49.

35) Ritchie, *Darwinism and Politics* (London, 1889), pp. 22-33.

36) Freedon, *New Liberalism* p. 91.

리치는 그린의 주장처럼 개인에게 최상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며, 국가는 신중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생존경쟁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리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개인 사이의 대결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는 생존경쟁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가져온 위대한 결과라고 보는 리치의 태도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자연은 하등유기체들의 생명의 소모에는 무관심하다. 사회 속의 인간을 돌아볼 때, 국가는 소모를 막는 으뜸 도구이다. 개인들 사이의 단순한 생존경쟁은 절제되지 않는 소모를 의미한다. 국가는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이와 같은 소모를 억제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들을 단순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휘하게 하고, 문화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³⁷⁾

리치는 국민들 사이의 협동에 근거한 집단적 개혁은 사회의 진화와 그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문명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린은 개인의 자치적인 도덕적 의지를 존중한 데 비해 리치는 사회개혁을 위한 국가의 직접적 활동을 더 강조했다. 그는 선거권의 확대는 공동선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활동이 결국 일반의지의 표출이라고 믿었다. 리치는 진화론과 관념론의 결합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들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유주의의 이념을 자유와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국가역할의 강조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³⁸⁾

IV. 홉하우스의 개혁적 다윈주의

1. 정신의 진화

자유방임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일차적 과제는 자유방임주의를 정당화했던 이론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대에 부응

37) Ritchie, *The Principles of State Interference* (1891), p. 50 ; Robbins, *British Hegelians*, p. 83.

38) Bentley, *Climax of Liberalism*, p. 76.

하는 새로운 정치·사회이론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새 이론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존질서가 처해 있는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론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홉하우스의 노력은 결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학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⁹⁾

홉하우스는 진화론을 통해 그의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⁴⁰⁾ 이 점에서 누구보다도 스펜서(H. Spencer)가 홉하우스의 출발점이 되었다. 홉하우스는 스펜서를 통해 사회적 진보를 위한 사회-철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의한 경험적 방법론을 알게 되었지만, 그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려는 태도와 진화론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철학을 수립하려는 근본 출발점은 서로 일치했으나, 스펜서는 자유방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론을 해석한 반면, 홉하우스는 진화론을 통한 자유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스펜서의 진화론은 개인주의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윤리의 본질을 ‘사회적 협동’으로 인식한 홉하우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홉하우스는 그리니 주장하는 관념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것 역시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⁴¹⁾ 왜냐하면 실증적 인식론을 지향하는 홉하우스에게 자연과학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관념론적 태도 또한 쉽게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홉하우스는 철학이 사변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진화론이 이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확신했다. 그에게 있어서 진화론은 철학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을 집대성하는 하나의 중심축이 되었다. 진화론을 자신의 중심사상으로 삼으려는 홉하우스의 당면한 과제는 진화론을 인간의 진보에 적용할 때, 스펜서의 이론이 초래하는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화론에 대한 해석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제 진화론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인간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일이 그의 학문적 목적이 되었다.

홉하우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일반적 통념을 수정하려

39) Philip Abrams, *The Origins of British Sociology 1834-191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 87.

40) L. T. Hobhouse, "The Philosophy of Development," J. H. Muirhead ed. *Contemporary British Sociology* (London, 1924), pp. 149-188.

41) Stefan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p. 150.

했다. 먼저 그는 윤리적 원칙인 평등의 원리가 생물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등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스펜서의 자연권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평등의 원리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사회적 진화과정에 작용해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권리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홉하우스의 생각이었다.⁴²⁾ 그 다음으로 생물학적 진화도 반드시 생존경쟁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³⁾ 즉 다윈 자신이 『종의 기원(*The Origins of Species*)』의 개정판 서문마다 주의 깊게 언급한 것처럼 자연도태는 종의 변화에 대한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윈은 진화과정에서 경쟁의 요소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협동의 측면도 중시했다는 것이다.⁴⁴⁾ 인간의 경우, 진화가 현 단계까지 이른 데에는 오히려 협동이 기여한 바가 더 컸다는 것이다.

홉하우스가 이론화했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적 진화론의 단적인 차이는 진화과정에서 정신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스펜서는 진화에 대한 이론을 과학 공식처럼 취급했다.⁴⁵⁾ 스펜서의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정신은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보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스펜서가 단언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인자들이 사회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들이고, 생존경쟁이 삶의 법칙이라면 사회정의와 인간애와 같은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펜서가 진화를 자동적·기계적·필연적 과정으로 보는 반면 홉하우스는 정신을 진화과정을 이끄는 주체로 파악하였다. 인간은 정신의 진화로 얻게 된 자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타의 생명체들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정신은 개인의 행위와 종의 발전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다.⁴⁶⁾

홉하우스가 정신이 진화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 데는 콩트(A. Comte)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정신이 지식의 성장과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콩트의 이론은 홉하우스 이론의 중요한 기초로 자리

42) Hobhouse, *Social Evolution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2), p. 197; *idem*, *Democracy and Reaction* (London: T. Fisher Unwin, 1905), p. 89.

43) Freedon, *New Liberalism* p. 86.

44) Charles Darwin, *Origins of Species* (Norwalk, Connecticut, Easton Press, 1976), p. 57.

45) J. E. Owen, L. T. Hobhouse, *Sociologist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p. 10.

46) Freedon, *New Liberalism* p. 89.

잡았다. 홉하우스는 진화과정에서 ‘정신발달의 단계들’을 밝히기 위해 심리학과 생물학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계속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는 사회발전에서 인간의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도출해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헤겔(G.W.F. Hegel)의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⁴⁷⁾

홉하우스는 『정신의 진화(Mind in Evolution)』(1903)에서 동물적 의식의 진화와 그것이 인간의 정신(mentality)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또 『도덕의 진화(Morals in Evolution)』(1906)에서는 인간의식의 진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저서를 통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발전과 목적(Development and Purpose)』(1913)에서 진화에 관한 철학적 분석으로 연결시켰다.

2. 진화론과 관념론의 조화

홉하우스는 자신의 이론에서 스펜서와 헤겔의 이론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즉 ‘진화론적 물질주의’와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종합하려는 것이었다. 즉 “다윈의 법정에서(in a Darwinian court) 헤겔의 형이상학을 증명해 보려는 것”⁴⁸⁾이 홉하우스의 출발점이었다. 헤겔과 다윈의 결합을 통해서 홉하우스는 역사를 이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으로 인식하였다.⁴⁹⁾ 그리고 정신의 목적은 투쟁이 없는 조화로운 세계의 창조라고 보았다. 모든 실체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정신은 유기체들 사이의 완전한 통일 혹은 ‘조화’를 창조하는 것이고, 조화란 유기체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협동 속에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했다.

여기서 이성은 “경험을 지배해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만드는 조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과 협동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려는 행위는 이성적 존재의 본능적인 충동인 것이다.⁵⁰⁾ 이처럼 홉하우스는 스펜서의 개인주의적 진화론을 뛰어넘어 집단주의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진화론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했다.⁵¹⁾ 홉

47) 그러나 홉하우스는 정신의 목적론적 진화에 있어서만 헤겔을 따랐다. 그 반면 헤겔의 국가이론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홉하우스의 헤겔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Hobhouse, *The Metaphysical Theory of the State, a Criticism*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18), pp. 6, 23-24, 137 참고.

48) Stefan Collini, *Liberalism and Sociology*, p. 151.

49) Peter Weiler, “The New Liberalism of L.T. Hobhouse,” *Victorian Studies* XV (1972), p. 148.

50) Hobhouse, *Liberalism* (London, Thornton Butterworth, 1911), p. 69.

51) Freedon, *The New Liberalism* p. 85.

하우스는 자유와 사회적 협동의 조화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성적이라 함은 인간이 타인과 협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⁵²⁾ 홉하우스는 역사를 이성적 원칙, 즉 정신의 자기실현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헤겔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⁵³⁾ 정신은 그 과정의 최종단계에 이르러 자의식(自意識)적이 되며 스스로의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투쟁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정신은 완전한 통일, 또는 ‘조화’를 창조하려 하며, 그 조화는 유기체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간의 마찰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협동의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홉하우스는 인간이 타인과 협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역사과정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⁵⁴⁾ 이처럼 그는 개인적 조화를 통한 공동선의 추구를 사회유기체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절대적 사명으로 보았다. 홉하우스의 이러한 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에 윤리적 집단주의의 철학을 접목시킨 것이다.⁵⁵⁾ 그 하나는 ‘사회가 의식을 가진 하나의 실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이 사회진화의 주체로서 환경과 인간을 통제하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홉하우스는 사회의 진화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조화’의 상태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현재 인류가 이러한 발전의 최종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단계를 폰트가 주장했던 ‘인류교(Religion of Humanity)의 단계’라고 생각했다.⁵⁶⁾ 인류교에 도달한 개인들은 스스로 사회발전에 마땅히 이바지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홉하우스의 생각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정신적 진화의 전환점은 인류교의 관념이 인간이 지향하려는 원칙으로 의식 속

52) *Ibid.*, pp. 144-148.

53) 홉하우스에 대한 헤겔의 영향은 C. M. Griffin, “L. T. Hobhouse and the idea of harmon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XXXV (1974), pp. 647-661을 참조.

54) Peter Weiler, “The New Liberalism of L.T. Hobhouse,” *Victorian Studies*, XV (1972), p. 148.

55) Freedman, *The New Liberalism*, pp. 89-90.

56) Weiler, “The New Liberalism of L. T. Hobhouse,” p. 149. 이 점은 밀(J. S. Mill)의 입장과 같다. John Ruskin, *The Improvement of Mankin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8), pp. 137-139.

에 뚜렷하게 자리잡을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관념은 인간의 내적, 외적 삶의 조건을 통제하는... 힘에 목적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주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지식이 진보해 갈수록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한 관념에 접근하고 있다.⁵⁷⁾

홉하우스는 인류교의 실현으로 협동과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와 공동체라는 상반된 이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홉하우스는 인간 스스로 인류교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홉하우스는 사회학이나 윤리적 내용을 정치적 이론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했다. 인류교라는 사회학적 윤리개념을 정치적 측면에서 공동선이라는 관념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국가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이론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즉 국가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공동선을 이루어 각 개인들이 인류교의 최종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홉하우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의 추구가 결국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구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⁸⁾ 홉하우스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⁵⁹⁾

공동선과 대립하거나 또 공동선을 무시하는 어떠한 권리도 있을 수 없다.⁶⁰⁾ 각 개인은 공동선 안에서만이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⁶¹⁾ 그린의 말을 인용하면 “각 개인은 공동선 가운데 자기 자신의 선(his own good on the common good)을 발견하는 것이다”.⁶²⁾ 인간이 공동선을 이루는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홉하우스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개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은 인격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57) L. T. Hobhouse, *Social Evolution and Political Theory*, pp. 15-16.

58) Hobhouse, *Liberalism* p. 69.

59) *Ibid.*

60) *Ibid.*, p. 67

61) *Ibid.*, p. 68.

62) *Ibid.*, pp .68-69.

그러나 홉하우스는 개인의 발전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³⁾ 즉 개인의 정신적 권리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격의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도 수반될 때 인간으로서 좀 더 완전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홉하우스는 그린보다 진일보한 생각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조화는 각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인격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영역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이른바 기회의 평등도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두 가지 권리의 확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핵심적 주장이었다.

V. 맺음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회적 다윈주가 가진 문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이념은 스펜서와 같은 일부 사회 사상가들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혹은 정치적 보수주의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하등 동물에게 적용되는 다윈주의의 개념을 인간사회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사회사상이자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 이념은 또한 자연계의 진화 이론을 인간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이나 개혁주의적 사고가 그 바탕을 이루었던 계몽주의적 관점을 극적으로 변질시켰다.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으로 20세기에 이르면 진보에 관한 기존 계몽주의적 관점은 도전을 받거나 거부되게 되었다. 계몽주의자들은 진보를 이성과 자유의 촉진, 교육의 확대, 생활수준의 개선, 전쟁의 배제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그러한 진보관을 부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의 강력한 감정적 호소에 자극을 받고, 사회적 다윈주의에 매료되어, 과학적 합리주의에 냉소를 보내면서 진보를 국가의 힘과 동일시하고, 국가들과 인종들 간의 투쟁

63) Hobhouse, *Social Evolution and Political Theory*, p. 198.

64) Hobhouse, *Liberalism* p. 70.

을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자연의 법칙과 창조적 힘이라고 까지 보게 되었다.⁶⁵⁾

진화론은 합리적 정신이 이루어 낸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사회 다윈주의자들의 손에서 그 위대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계몽주의자들이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던 반면,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인류를 인종적 우월자들과 열등자들로 분리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이 국가는 폭력적인 투쟁을 줄이기 위해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반면, 사회 다윈주의자들은 인종적, 민족적 투쟁을 생물학적 필연성, 역사의 법칙, 진보의 수단으로 간주했다.⁶⁶⁾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의 법칙과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영토 확장과 군비 증강을 촉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제1차 세계대전을 열렬히 환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인종들 간의 투쟁이라는 사회 다윈주의의 관념은 1차 대전 이후 나치당의 핵심 신조가 되었고 대량학살의 과학적·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우리는 21세기 초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자생적 질서’라는 자유방임의 경쟁적 질서에서 전 세계가 커다란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스펜서와 하이에크가 일치되게 추구한 사회적 다윈주의는 기계적 진화, 경쟁, 적자생존, 이성 배제, 그리고 국가불간섭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제 우리는 진화론의 과학성을 담보로 한 그들의 주장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고, 큰 고통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다윈주의의 잠재적 파괴성과 위험성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유경쟁’, ‘자유시장’, ‘시장지상주의’, ‘능력본위사회’, ‘세계화의 무한경쟁’ 등 여러 가지 그럴듯한 수사를 동원하여 권력과 재화를 독식하려는 사회적 강자들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리치와 홉하우스 등 개혁적 다윈주의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이 기계적 진화와 사회적 다윈주의의 폐단을 비판하고, 생물학과 관념철학을 결합하여 진화 과정에서 정신의 역할에 주목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개혁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하려는 이유는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특정한 과학이론을 지나치게 신봉하거나 혹은 그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우리의 삶

65) Perry,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Europe*, p. 348.

66) *Ibid.*, p. 359.

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는 말아야 한다. 과학이 인간의 삶에 이바지해야지 인간이 과학을 숭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윈주의는, 사회적 다윈주의와 같이 인간이 신봉하는 도그마가 아니라, 개혁적 다윈주의와 같이 인간의 진보에 기여하는 과학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ABSTRACT〉

From Social Darwinism to Reform Darwinism: The Reinterpretation of Darwinism in the 19th Century

PARK Woo Ryong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rwin's theories were extended by others beyond the realm in which he had worked. Social thinkers, who recklessly applied Darwin's conclusions to the social order, produced theories that had dangerous consequences for society. Social Darwinists—those who transferred Darwin's scientific theories to social and economic issues—used the terms “struggles for existence” and “survival of the fittest” to buttress economic individualism and political conservatism. Successful businessmen, they said, had demonstrated their fitness to succeed in the competitive world of business. Their success accorded with nature's laws and therefore was beneficial to society; those who lost out in the socioeconomic struggle had demonstrated their unfitness. In contrast, They contended that social reforms instituted by the government upset the competitive order decreed by nature; by favoring the least fit, these ill-conceived reforms weakened the nation.

In *The Man versus the State* (1884), British philosopher Herbert Spencer (1820-1903) rejected the idea that evils of all kinds should be dealt by the state. Committed to a philosophy of extreme individualism, Spencer never abandoned the view that the state was an evil and oppressive institution. He favored a society in which government would play the smallest role possible and individual freedom would be maximized. Social Darwinists regard racial and national conflict as a biological necessity, a law of history, and a means to progress. Claiming to rest on the authority of science, these views promoted territorial aggrandizement and military build-up and led many to welcome World War I. The Social Darwinist notion of the struggle of races for survival became a core doctrine of Nazi party after World War I and provided the “scientific” and ethical justification for genocide. The

leading late-nineteenth-century figures in the shaping of a new liberal position were Thomas Hill Green(1836-1882), D. G. Ritchie(1853-1903), J. A. Hobson(1858-1940), and L. T. Hobhouse(1864-1929). In general, these thinkers argued that laissez faire protected the interests of the economically powerful class and ignored the welfare of the nation. Those advocates of state intervention contended that the government has a moral obligation to create social conditions that permit the individual's self-realization. Overcoming a traditional liberal mistrust of state power, those progressives assigned the state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social conditions and insisted that state actions need not threaten individual freedom. To support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British welfare state Ritchie and Hobhouse tried to reinterpret Darwinist theories in terms of social reform.

key words: Social Darwinism, Reform Darwinism, State Intervention, Evolution of Mind, Harmony